

KBS, 2020년부터 ‘상위직급 축소’ 직급체계 시행

KBS의 최상위 직급인 관리직급과 1직급 폐지 등 상위직급 축소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직급체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관리직급과 1직급은 모두 401명으로 전체 직원의 7% 수준이다. 또 직원들을 책임자와 실무자로 구분하는 ‘변동형 직급제’도 도입된다. 이는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이다.

지난 10일 이사회가 의결해 확정된 직급체계 개편은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지적해온 상위직급 과다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KBS의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공영방송 KBS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BS는 직급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양승동 사장 취임 두 달 뒤인 2018년 6월 전사적인 실무 TF를 구성했고, 이후 총 38번의 회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조에 직급체계 개편안을 설명했고, 지난달 19일에는 직원설명회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무엇보다 과반 노동조합(일반직 기준)인 언론노조 KBS본부와는 노사TF를 구성해 8번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사회 의결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직급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새로운 직급체계는 현 보직자를 포함한 일부 상위직급 직원들의 임금저하를 수반하는 만큼 상위직급 과다와 함께 지적돼온 상위직급의 고임금 문제 등을 해소하고 KBS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직급	구분	직급
일반직	관리직급	책임직급	M1(국장급)
	1직급		M2(부장급)
	2직급갑		M3(팀장급)
	2직급을	실무직급	G0(관리·1직급)
	3직급		G1(2직급갑)
	4직급		G2(2직급을)
	5직급		G3(3직급)
	6직급		G4(4직급)
	7직급		G5(5직급)
			G6(6직급)
축약직		축약직	
방송음악직		방송음악직	

상위직급 비율 어떻게 축소되나?

먼저 최고 상위직급인 관리직급과 1직급은 폐지된다. 관리직급과 1직급 승진자를 만들지 않는 일몰제 방식으로 적용한다. 현재 관리직급과 1직급은 G0 직급으로 통합되며 대상 직원이 모두 정년퇴직하는 2031년 이 되면 해당 직급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책임과 역할에 따른 변동형 직급체계를 도입한다. 변동형 직급체계는 크게 책임직급과 실무직급으로 나뉜다. 책임직급은 팀장, 부장, 국장급 보직자가 해당되고 이외 직원들은 실무직급으로 구분된다. 책임직급은 국장급 이상-M1, 부장급-M2, 팀장급-M3로 나뉘고 실무직급은 관리직급·1직급은 G0, 2직급갑-G1, 2직급을-G2, 3직급-G3 등으로 구분된다.

책임직급은 보직을 맡은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부여된다. 따라서 사실상 상위직급으로 볼 수 있는 책임직급의 인원수는 제한적인 셈이다. 또한 G1, G2의 정원은 통합하여 별도 관리한다. 현재의 고정형 직급체계는 해당 직원의 책임과 역할에 상관없이 직급과 직위가 혼동되었으나, 변동형 직급체계에서는 직급과 직위 개념을 일치시켜 직급에 따른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면에 계속 ▶]

시청자 사랑 듬뿍! 시청률 상위권 장악!

드라마부터 예능, 교양에 이르기까지 화제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KBS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올라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고 있음이 시청률 기록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일일 시청률(닐슨코리아 전국기준)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KBS 프로그램들이 모두 차지한 날만 9월 18일 이후 8일(9/18, 9/23, 9/25, 10/1, 10/2, 10/7, 10/9, 10/16)이다.

(2019.10.16. 지상파 시청률 / 닐슨코리아 전국기준)

순위	프로그램명	채널	시청률
1위	여름아 부탁해	KBS1	23.3%
2위	태양의 계절	KBS2	15.2%
3위	동백꽃 필 무렵 2부	KBS2	13.4%
4위	KBS 뉴스 9	KBS1	12.5%
5위	동백꽃 필 무렵 1부	KBS2	11.0%
6위	인간극장	KBS1	10.0%
7위	아침마당	KBS1	8.9%
8위	6시 내고향	KBS1	7.6%
9위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KBS2	7.5%
10위	KBS 뉴스 7	KBS1	7.0%

탄탄한 드라마 라인업... 드라마 1위 탈환!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탄탄한 드라마 라인업이 특히 한몫을 했다. 먼저 유쾌한 조선판 로맨틱 코미디 월화 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은 방송 첫 주 만에 월화극 1위에 등극하며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은 화려한 볼거리가 없음에도 가장 눈에 띄는 드라마로 꼽힌다. 웅산이라는 시골마을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명품 연기는 명장면과 명대사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멜로와 휴먼에 스릴러까지 더해져 방송이 끝날 때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열띤 토론이 펼쳐질 정도이다. 이러한 기대를 증명하듯 수목극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KBS 드라마, 주말에도 눈을 땔 수 없네!

주말에는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사물인품)이 장식한다. 방송 8회만에 시청률 25%를 기록하며 KBS 주말드라마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드라마 전체 시청률 1위를 차지한 <사물인품>은 매회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며 극의 반전을 선사, 안방극장을 뒤흔들고 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KBS만의 프로그램

일일드라마 <여름아 부탁해>는 시청률 23.1%로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여름아 부탁해>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도 KBS가 선두

드라마뿐만 아니라 KBS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역시 시청률 7.8%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수요 예능 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 <인간극장>, <아침마당>, <6시 내고향> 등 교양 프로그램들이 내로라하는 타사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제치고 시청률 상위권을 차지한 이유는 가슴 따뜻하고 유쾌한 사람 사는 이야기로 한국인의 정서와 찰떡궁합을 이루며 전 세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계를 허무는 KBS의 도전... 유튜브, 이제 전략적 접근이다!



지금 디지털 미디어의 중심은 유튜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앉아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인기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모습은 점차 사라져 가는 반면, 각자 유튜브로 '먹방' 같은 유명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즐기고 드라마와 예능도 편집된 클립본을 골라 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KBS도 콘텐츠의 확장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시청자의 콘텐츠 소비

유튜브 채널 재정비, 프로그램 연계형 콘텐츠 제작에 주력

현재 KBS 관련 유튜브 채널은 79개에 달한다. 유튜브의 폭발적인 성장에 맞춰 프로그램 단위나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채널을 만들어 운영해온 탓에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 이에 KBS는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은 통합하고, 정체성이 모호한 채널들은 서비스를 종료한 뒤 재정비할 예정이다. 지상파 프로그램 연계형 콘텐츠 제작에 주력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콘텐츠 업로드 전략도 세웠다. 또한 TV와 유튜브를 오가는 콘텐츠 기획을 확대하여 디지털 바이럴과 지상파 광고 간 시너지 효과도 노린다. 예전 인기 콘텐츠를 순도 높게 사용하여 이용자 유입과 광고 수익 측면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크크TV', 'Again 가요톱10' 등의 큐레이션 채널은 서비스를 지속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패턴에 맞춰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왔지만 전략과 채널 특화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자성이 있어왔다.

KBS는 앞으로 PSM전략부가 중심이 되는 사내 협의체를 통해 유튜브 관련 현안과 정책을 조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방식과 업무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목표는 유튜브 세계에서 KBS 콘텐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동시에 도달률을 높이면서, 수익도 극대화하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 프로세스도 개편

제작부서 주도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도 확대된다. 예능센터 직속 '디지털 콘텐츠 조사팀'처럼 제작진과 함께 호흡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시청층을 공략하겠다는 것. 또한 프로그램 제작부서가 지상파와 디지털 구별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까지 병행하는 방식도 권장할 계획이다. 지상파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유튜브를 제외한 포털 등 주요 플랫폼에 공급해 왔던 SMR(Smart Media Rep)과 구글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일정 기간 홀드백 이후에는 유튜브에 드라마와 예능 클립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추가 광고 수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드라마, 예능의 주요 클립들을 조만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관련 핵심 업무는 계열사에서 본사로 전환해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 1면에 이어서]

보수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나?

책임직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보직을 맡은 동안에만 현재 2직급 갑의 직급수당과 직책수당을 합한 수준의 '책임직급수당'을 받게 된다. 책임직급수당은 직책수당을 폐지하고 책임직급 신설에 따라 새로 생기는 수당이다. 또 부장급 이상에게는 '책임자 성과급제'가 적용된다. 이는 간부급 직원들의 업무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과 부서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더 받는 보직자도 있지만 임금이 삭감되는 보직자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능력급제는 매년 임금이 상승되고, 보직에서 내려와도 계속 능력급제의 적용을 받아 성과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하도록 돼있다. 반면에 이번 개편을 통해 개선된 보수지급 기준에 따르면 보직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책임직급수당과 책임자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한번이라도 보직을 하면 계속 유지되던 능력급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상위직급의 지속적인 임금 상승을 억제하게 된다. 즉 주어진 업무가 많고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게는 적절하게 보상을 제공하고, 성과가 적은 직원들의 임금은 삭감하는 구조로 보수 지급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회사는 이런 방식을 통해 조직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상위직급의 과도한 임금 상승도 제어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줄여 전체 인건비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의 실무직급 직원들의 보수체계는 기존과 같다. 다만 추가적으로 전문가 제도의 대상이 될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인 전문가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 보도 등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우수한 직원들을 전문가로 선발하여 보직을 맡지 않더라도 전문성을 통해 보상받고, 콘텐츠 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직급의 성과급은 어떻게 산정되나?

책임직급의 성과급은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M2직급 이상이 대상이며 한 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적용대상이 된다. 성과급 지급액은 책임직급 수당(2개월 분) × 개인별 지급률로 계산한다.

구분	S	A	B	C	D
개인별 지급률	60%	30%	-	(-)30%	(-)60%
인원배분 비율	5%	20%	50%	20%	5%

그러면, 현재 보직자들에게만 많은 보수가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직급체계 개편이 보직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부장 이상의 보직자들은 능력급제 대신, 책임자 성과급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능력급제에서 받던 수준보다 임금은 하락할 수 있다. 책임자 성과급제의 평가에 따라 성과가 좋지 않은 일부 보직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임금 저하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제도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책임직급수당이 보직을 맡은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보직자가 평직원이 되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실무직급의 수당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능력급제 적용받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능력급제는 관리직급과 1직급, 그리고 부장 이상의 보직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2직급 갑 직원이 대상이었다. 이들 가운데 보직자의 경우, 능력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책임자 성과급제를 적용받는다. 그 외 보직이 없는 능력급제 적용 직원은, 능력급제 유지와 기본급제 전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능력급제를 유지를 선택한 직원은 합리적으로 변경된 새로운 능력급제 기준을 적용받는다. 바뀌는 능력급제는 매년 이뤄지던 기준급 조정이 폐지된다. 따라서 능력급제를 적용받지만 보직을 맡지 않은 직원들의 임금은 사실상 동결된다. 또 성과급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업무에 성과를 내는 능력급제 직원들은 이에 따른 보상을 받았지만, 성과가 낮을 경우 그에 합당한 성과급 적용을 받는다.

책임과 실무직급을 오가는 G2에서 G1의 승진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

책임직급이 부여된 직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직급으로 재직한 기간도 승진 소요년수에는 포함되지만 책임직급에서 무보직상태인 실무직급으로 돌아간 후에 승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른 개개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1년 이상 보직자를 대상으로 책임직급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책임직급의 근무평가 결과는 실무직급으로 돌아간 후 승진에 반영된다.

구분	M1	M2	M3	비고
연간가점	2.4점	1.8점	1.2점	1개월당 가점×12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열려

‘2019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시상식이 지난 10일 KBS TV공개홀에서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28년간 131억 원을 기부한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등 130명의 개인과 25개 단체가 나눔국민대상을 수상했다. 2012년부터 시작한 나눔국민대상은 KBS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양승동 사장, 국감서 “KBS 신뢰도 향상 위한 변화와 혁신 추진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17일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사장은 재난방송 강화와 콘텐츠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직급체계 개편 등의 조직혁신과 지역방송 활성화 등을 통해 KBS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동 사장은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 출연자의 기자 성희룡 발언과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 후 법적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KBS,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MOU 체결



KBS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 지난 7일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국 18개 KBS 지역(총)국과 지역미디어센터의 인적·물적 협력을 통해 지역의 미디어 교육 허브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주적 소통과 디지털 지식 격차 해소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KBS독립영화상’ 수상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가 ‘KBS독립영화상’을 받았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영화 프로듀서 일을 그만둔 주인공 ‘찬실’이 도시 외곽에 정착하며 겪는 일상들을 따뜻한 시선과 유틸 넘치는 대사로 그려낸 작품이다. 올해로 2회째인 ‘KBS독립영화상’은 한국독립영화발전을 위해 KBS가 부산국제영화제에 마련한 상으로 수상작에는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KBS독립영화관〉을 통해 방영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



‘KBS국악대경연’ 대상에 가야금 연주자 윤지현 씨

제29회 KBS국악대경연에서 가야금 연주자 윤지현씨가 대상에 선정됐다. 지난 11일 KBS홀에서 열린 KBS국악대경연 대상선정 연주회에서 윤씨는 현악 부문 금상과 함께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성악과 관악, 현악과 무용, 타악 5개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대상’의 자리를 놓고 열띤 경연을 펼쳐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KBS국악대경연’은 KBS가 우리 국악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국악인 양성을 위해 1990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이번 대상선정 연주회는 22일 오후 2시 40분부터 KBS 1TV에서 방송된다.



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국악인 양성을 위해 1990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이번 대상선정 연주회는 22일 오후 2시 40분부터 KBS 1TV에서 방송된다.

25일 ‘독도의 날’ 기념, 24시간 유튜브 생중계

KBS는 ‘독도의 날’인 오는 25일, 유튜브 ‘KBS한국방송(my love KBS)’ 채널로 독도와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를 생중계하는 ‘해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이벤트를 24시간 동안 진행한다. KBS는 2005년에 독도에 파노라마 카메라를 설치해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중계하기 시작했고, 지난 7일에는 격렬비열도에도 영상전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뮤직뱅크〉1,000회 특집 ‘Back to 1998’ 이벤트 18일 열려

대한민국 대표 음악방송 〈뮤직뱅크〉가 지난 18일로 방송 1,000회를 맞이했다. 〈뮤직뱅크〉는 1998년 6월 16일 첫 방송을 시작해 그동안 K-Pop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지난 18일 1,000회 방송 기념 생방송에서는 방청객들이 1998년 유행 의상을 착용하고 입장하는 ‘Back to 1998’ 드레스 코드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날 특집 방송은 또, 지난 21년간 〈뮤직뱅크〉의 변화 과정과 함께 가요계의 트렌드 흐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2019 KBS 한국어 포스터 특별전시회’ 개최

‘KBS 한국어 포스터 특별전시회’가 오는 27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KBS 아나운서들이 바른 우리말을 알리기 위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포스터들 가운데 엄선한 30여 점을 선보인다. 또 지난 3일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바른 말 고운 글 그리기 대회’의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된다. KBS 아나운서실은 한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98년부터 매달 한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초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무료 배포하고 있다.





KBS 춘천총국, 「레이크뮤직페스티벌」 단독 주최… 지역 방송의 존재감과 필요성 제시

「레이크뮤직페스티벌」이 지난 9월 21일과 22일 춘천 공지천에서 열렸다. 2015년 「춘천가족음악축제」로 출발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레이크뮤직페스티벌」은 온 가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이들간의 음악 향연이다. 올해는 KBS 춘천총국이 단독으로 주최하며 <Again 가요톱10>, <울댓뮤직>의 공개 방송과 다양한 부대행사로 팬들의 기대감에 보답했다. KBS 춘천총국은 「레이크뮤직페스티벌」을 통해 지역 시청자들 뿐 아니라 춘천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음악 선물을 선사하며 지역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Again 가요톱10>, <울댓뮤직> 공개 방송으로 축제 분위기 UP!

「레이크뮤직페스티벌」 첫날인 지난달 21일,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 그 자체였던 <가요톱10>이 21년 만에 공연으로 부활했다. 90년대 히트곡과 당시 톱 가수 DJ. DOC, 박미경, 김완선 등의 무대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1998년 2월, 마지막 방송을 진행했던 MC 손범수가 진행을 맡아 당시의 열기를 고스란히 재연했다. 둘째 날에는 올해로 방송 9주년을 맞은 <울댓뮤직>의 스페셜 무대가 이어졌다. 최근 <울댓뮤직>의 MC가 된 인디 음악계의 아이돌 고영배의 진행으로 폴킴, 몽니, 덕평스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출연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음악 선물을 선사했다. <Again 가요톱10>과 <울댓뮤직> 공개 방송은 지난 3일부터 4주간 전국으로 방송된다.



본사와 지역총국의 협업으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창출

<Again 가요톱10>은 기획 단계부터 KBS 춘천총국과 본사 콘텐츠아카이브부가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해 본사와 지역총국의 협업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콘텐츠아카이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Again 가요톱10>을 통해 사전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공연 당일에는 라이브 방송도 서비스해 방송과 디지털 플랫폼을 오가는 콘텐츠를 탄생시켰다. <Again 가요톱10> 공연을 기획한 춘천총국 황국찬PD는 “중계기술국, 영상제작국 등 본사 유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 페스티벌이 성공적이었다. 춘천총국에서 9년째 제작 중인 <울댓뮤직>의 제작 역량 또한 기반이 되었다”며 “앞으로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새 프로그램 소개



심장이 쿵... 인생 리셋을 꿈꾸는 <꽃길만 걸어요>

인생 리셋을 꿈꾸는 주부 ♥ 심장이 바뀐 남자

1TV 새 저녁 일일드라마 <꽃길만 걸어요>(연출 박기현 / 극본 채혜영, 나승현)는 진흙탕 시대살이를 굳세게 견뎌 온 열혈 주부 강여원(최윤소 분)과 가시밭길 인생을 꽃같이 헤쳐 온 초궁정남 봉천동(설정환 분)의 심장이 쿵쿵 뛰는 인생 리셋 드라마다. 고집 센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고

육아, 살림, 재테크까지 완벽히 해내는 A급 며느리이자 열혈 주부 강여원 역은 배우 최윤소가 맡는다. 대학시절 기자의 꿈을 가졌던 강여원은 결혼한 이후 더 이상 심장 뛰는 일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고로 인생 제 2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심장 주인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다

고아에 심장병을 앓고 있지만 사법고시 패스까지 이뤄 낸 초궁정남 봉천동 역을 배우 설정환이 유들유들 낙살도 좋고 강단도 있는 매력적인 연하남으로 분한다. 설상가상 심장에 이상이 생겨 생사를 오가는 위기를 겪지만 은인의 도움으로 심장을 이식받고 난 뒤 그 심장 주인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인물. 특히 운명의 상대를 향해 가는 로맨티스트 직진남의 매력은 안방극장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첫방송 10월 28일 월요일 밤 8시 30분, 1TV



세대초월 먹방 대통합 <신상출시 편스토랑> '기대 UP'

6인의 스타 레시피, 다음날 편의점에서 즐기자!

KBS 새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연예계 소문난 '맛.잘.알(맛을 잘 아는)' 6인의 스타들이 혼자 먹기에 가까운 필살의 메뉴를 공개한다. 이 중 메뉴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승리한 메뉴가 방송 다음날 실제로 전국 편의점을 통해 출시되는 신개념 편의점 신상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연예계 소

문난 미식가이자 맛의 고수인 이경규, 이영자, 정혜영, 김나영, 정일우, 진세연까지 6인의 멤버가 출연한다. 또한 메뉴 평가단으로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승철, 이연복 셰프, 이원일 셰프가 스타들의 메뉴를 날카롭게 평가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능 기부를 통한 착한 미디어 커머스 탄생

편의점에서 상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돼 소비가 기부로 연결되는 착한 미디어 커머스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상출시 편스토랑> 첫 티저에서는 국민 먹방멘토인 이영자와 먹방영재 윌버저스(윌리엄-벤틀리 형제)가 만나, 국내최초 4D 미각만족 프로젝트를 예고했다. 과연 심사를 통해 어떤 스타의 메뉴가 살아남을지, 실제 편의점에서 접하게 될 메뉴는 무엇이며, 어떤 맛일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 첫방송 10월 25일 금요일 밤 9시 45분, 2TV